

# 대세 걸그룹 '블랙핑크 · 마마무' 동시 출격



블랙핑크는 22일 '마지막처럼'을 공개했다.

대세 걸그룹으로 통하는 '블랙핑크'와 '마마무'가 나란히 지난 22일 신곡을 발표했다. 블랙핑크는 2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메인 프로듀서 테디와 손잡은 신곡 '마지막처럼'을 공개했다. 테디와 블랙핑크는 '휘파람' '붐바야' '불장난' 등 음원차트 올킬은 물론 1년도 안 돼 세 개의 뮤직비디오 유튜브 1억뷰 돌파라는 협업을 이룬 마마무 '마지막처럼'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시크한 그룹으로 통하던 블랙핑크가 여성스러움과 발랄함

을 잃고 여름에 어울리는 그룹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 홍대 앞에 차려진 블랙핑크 팝업 스토어에서 만난 블랙핑크 멤버 지수는 "이전까지는 걸크러시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소녀 감성이 섞인 새로운 걸 크러시"라고 소개했다. 양현석 YG 대표프로듀서가 지은 팀 이름은 시크한 블랙, 발랄한 핑크의 콘셉트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지수는 "저희의 새로운 느낌도 알고 싶었다"며 "이번에는 예능 활동을 비롯해 방송 등 다양한 경로로 팬들과 더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전에는 블랙에 가까웠어요. 연습생 시



다섯 번째 미니앨범 '퍼플(Purple)'을 발표한 마마무

## '여름 걸그룹' 자리 놓고 '대격돌'

절에는 더 세고 힙합적인 노래를 연습해서 더 진한 블랙에 가까웠죠. 밝은 모습으로 여름에도 핫한 걸그룹이 되고 싶어요." 떠오르는 그룹인 마마무도 이번에는 '블랙핑크'와 맞붙는다. 오스 7월 20일 일본 부도칸에서 '블랙핑크'의 데뷔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다섯 번째 미니앨범 '퍼플(Purple)'을 발표한 마마무도 타이틀곡 '나로 말할 것 같으면'으로 여름 걸그룹을 꿈꾼다. 블랙핑크처럼 변신을 시도했다. 특히 타이틀곡 '나로 말할 것 같으면'에서 기존 선보였던 레트로 음악에서 벗어

나 모던한 사운드로 변화를 줬는데 여름에 잘 어울리는 트로피컬 사운드가 청량감을 안긴다. 주로 보라빛 의상은 발랄함을 더한다. 마마무의 문명은 이날 서교동 무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우리 팀은 어떤 틀에 갇힌 캐릭터가 아닌 것 같다"며 "자유분방함이 가득해 우리의 색깔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앨범의 콘셉트는 '큐티 허세'. "당당한 여성의 귀여운 외침"이다. 솔라는 "당당한 여자들의 외침이에요. 허세를 부리지만 믿지 않은 귀여운 여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 'AOA' 초아 탈퇴...소속사, "본인 의견 최대한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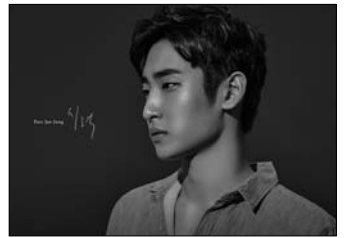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AOA' 초아 탈퇴 선언과 관련 "본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추후 거취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NC는 이날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당장 탈퇴 여부와 향후 활동 등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FNC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전날 초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부로 'AOA'라는 팀에서 탈퇴해 함께했던 멤버들의 활동을 응원하고자 한다"며 팀 탈퇴를 선언했다.



/뉴시스

## 박재정, 29일 새 싱글 '시력' 발표

가수 박재정(22)이 이달 새 노래를 발표했다.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재정은 오는 29일 싱글 '시력'을 내놓는다. 이 곡은 윤종신과 정석원이 의기투합해 만든 이별 발라드다. 미스틱은 "약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박재정 맞춤형 발라드"라고 설명했다. 박재정은 음원 발표에 앞서 25일 SBS TV '인기가요'에서 신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박재정은 2013년 슈퍼스타K 시즌5에서 우승하며 가수 데뷔했다. 이후 '얼음랭' '두 남자' '여권' 등을 내놨다.



/뉴시스

# '액자식 연출' 도입 예능 프로그램 대세

## 타인의 시선으로 시청자들과 공감 포인트 만들어 내

방송가에 '액자식 연출'을 도입한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다. 출연진들 영상을 보고 패널들이 중계방송하듯 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 엄마가 화자가 돼 아이의 일상을 관찰하는 SBS '미운 우리 새끼'는 평균 시청률 20%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중이며,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은 시즌2가 제작돼 방송 중이다. 지난달 28일 MBC '일밤 - 세모방 : 세상의 모든 방송'이 첫 방송됐다. '세모방'은 국내 최초 방송사 간의 벽을 허문 리얼리티로,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방송 프로그램에 MC 군단을 투입, 실제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전반에 걸쳐 참여하며 방송을 완성하는 아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액자식 연출을 이어지는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가지 버전의 영상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하게 다가올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에 민감하다. 자신의 취향과 정서에 맞지 않으면 비판적인 입장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장치로 들어가는 것이 그걸 보면서 거기에 코멘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어주는 것"이라며 "이들이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표하기도 한다. 문제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면이 있어 액자식 구성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리얼리티 아이 프로그램이 되면서 아이 촬영분은 자막이나 특수 효과, 교차 편집 등을 해서 준비된 내용들을 방송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다. 관찰 예능에서도 똑같은 형식이었고, 사실 진행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출연자들이 아이에서 촬영한 것을 보여주는 형식이었는데 최근에 '미운 우리 새끼'가 크게 히트했다"며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다음에 가족들이 보고 스튜디오에서 토크를 나눈다. 시청자 입장에서 미리 촬영된 영상에서 느끼는 재미도 있고, 스튜디오에 출연한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서 재미를 느낀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영화 '협상' 손예진·현빈 출연 확정 촬영 시작

영화 '협상'(감독 이종석)이 손예진·현빈 등 출연진을 확정하고 본격 촬영에 들어갔다고 CJ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3일 밝혔다. '협상'은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경찰이 자신의 상사를 납치한 인질범과 대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범죄스릴러물이다. 손예진이 협상가 '하재운'을, 현빈은 하재운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이는 '민태구'를 연기한다. 이번 작품에는 손예진·현빈과 함께 김성호·장광·장영남 등도 합류했다. 손예진은 "어떤 영화든 첫 촬영은 긴장이 되지만 다들 좋은 호흡을 보여줘 즐겁게 촬영을 시작했다"며 "배우·스태프 모두 최선을 다해 무사히 촬영을 마쳤으면 한다"고 했다. 현빈은 지난 17일 첫 촬영을 마치고 "좋은 배우, 좋은 스태프와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종석 감독은 "최고 배우들, 실력 있는 스태프들이 있어서 순탄하게 촬영이 시작됐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작품이 완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